

● 제12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

제12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鄭石謨 내무부장관과 李大鎔 이사장, 손·생보단 사장 등 내외 귀빈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전국의 모범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시상제도는 지난 74년 제정된 이래 모두 85명의 수상자를 낸 바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과 함께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진다.

● 소방기기 기증

국가 소방장비의 현대화와 소방기능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협회가 197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소방기기 기증식이 지난 10월 15일 내무부장관실에서 거행됐다.

이 자리에서 李大鎔 이사장은 鄭石謨 내무부장관에게 소방기기를 기증하고 이를 국가소방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기증한 소방기기는 소방차 6대, 공기호흡기 2백 54대, 방열복 23착 등으로 시가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

● 제9회 초·중·고 학생 불조심 웅변대회

화재예방 의식고취와 불조심 생활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본 협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제9회 전국 초·중·고 학생 불조심 웅변대회가 지난 11월 14일 李大鎔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과 내무부, 재무부의 관계관 등 많은 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본 협회 1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

내무부가 주관하고 본 협회와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제3회 전국 소방왕 선발대회가 李大鎔 이사장을 비롯 李圭孝 내무부 차관, 李在昌 민방위 본부장 등 유관기관의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7, 18일 양일간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서울시 소방교육대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원, 부녀대원 등 총 2백 73명이 참가하여 모두 18개 종목의 경기를 펼쳤는데 부문별 개인종합 입상자에게는 각각 1계급 특진과 함께 내무부장관의 상장 및 부상으로 상금이 수여됐으며, 또 단체종목 입상자에게는 우승기, 우승컵 및 내무부장관 표창과 부상으로 소방차 등의 소방장비 및 상금이 수여됐다.

● 특건소유주 초청간담회

협회는 지난 10월 30일 6층 회의실에서 李一男 전무를 비롯 文元植 이사, 관련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부서와 보험부서에서 선정한 20명의 특수건물소유주들을 초청하여 점검 및 보험업무의 당면문제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 일선장병 위문

李大鎔 이사장은 연말을 맞아 지난 12월 18일 공군 전술비행단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에게 온풍기, 전기스토브 등 전열제품과 李이사장의 저서인 「사이공 억류기」 및 「국경선에 밤이 오다」 등 도서 400권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다.

● 불우이웃돕기

李大鎔 이사장과 李一男 전무는 연말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19일과 21일에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상록보육원과 신림동의 신림유아원 및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천사종합복지원을 각각 방문하고 과자 4백 16세트와 쇠고기 45근 등을 전달한 후 원생들을 격려했다.

현재 상록보육원과 신림유아원에는 각각 97명과 100명의 어린 원생들이 있으며 천사종합복지원에는 노인과 어린이 등 2백 19명이 생활하고 있다.

● 방재시험소 이전

협회부설 방재시험소의 개발부 및 시험부 요원 전원이 지난 10월 31일 여주시험소 현장으로 모두 이전하였다. 이로써 방재시험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33명에 이르고 있다.

●柳景鎬 내무부소방국장 취임

내무부는 지난 12월 14일자로 민방위본부 소방국장에 柳景鎬 전 대구직할시 부시장을 임명 발령하고 金大洋 전 소방국장을 부산직할시 부시장으로 승진 발령하였다.

●任炳玉 서울소방본부장 취임

서울특별시는 지난 11월 1일자로 李亨雨 서울소방 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에 任炳玉 소방학교장을 전보발령하였다.

제8대 서울시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한 任本부장은 소방본부의 복무방침으로 「우리 소방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즐겁게 일하자.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갖자」로 정하고 당면한 업무지시를 통해 월동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질서 유지업무수행과 공직기강 쇄신운동 실천을 철저히 하도록 시달하였다.

●서울시 소방본부 인사이동

서울시 소방본부는 12월 13일자로 본부방호과장에 韓金鍾 전 중부소방서장을, 서부소방서장에 金洪鍾 전 본부 행정계장을, 강서소방서장에 白澈 전 과천 소방서장을, 북부소방서장에는 李明雄 전 송탄소방서장을 각각 승진발령하고 중부소방서장에 李成珪 전 용산소방서장을, 강동소방서장에 朴泰敎 전 북부 소방서장을, 용산소방서장에 安甲壽 전 서부소방서장을 각각 전보발령하였다.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서울시 소방본부는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8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범시민적인 불조심 계동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11월 1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고 모범소방관 16명을 특별승진 시키는 한편 유공소방관 1백 49명과 소방행정에 공이 많은 민간인, 학생 등 1백 40여명에 대한 훈, 포장,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불조심 결의를 다진데 이어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화재진압 기술시범훈련을 실시하였다.

한편 서울소방본부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지난 11월 8일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어린이들의 불조심 경각심을 널리 고취시키기 위한 어린이 사생대회를 가졌으며 11월 10일에는 국민학생 자기집 방화 점검의 날, 11일에는 가정방화점검의 날, 20일에는 직장방화점검의 날로 정하고 겨울철에 대비한 자체 소방안전대책을 일제히 점검토록 하였다.

또한 서울시 소방본부는 지난 11월 16일 시내 동대문구 신설동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화재를 가상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시범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는 소방관 58명, 소방차 12대와 지하철 역무원 등 자위소방대 1백 80명이 참가하였다. 이어 11월 26일에는 동대문구 장안동 소방관 훈련장에서 그동안 연마한 화재진압기술 및 능력을 종합평가하는 화재진압기술 능력평가 시범훈련도 실시하였다.

●85년도 소방홍보전시회

내무부가 주관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주최한 85년도 소방홍보전시회가 지난 10월 14일 서울시청앞 지하철역 지하도 전시장에서 개막되어 11월 20일까지 37일동안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6대도시에서 순회전시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출품한 대형화재사진 12 점을 포함, 각 유관기관에서 제공한 소방관계자료 및 각종 소화기 16점이 전시된 이 전시회는 연인원 67만 1천7백5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동소방서 개서식

서울특별시는 88올림픽 주경기장과 부대시설등 강남의 신흥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강동에 소방서를 신설하고 지난 12월 21일자로 개서식을 가졌다.

새로 개서된 강동소방서(초대서장 朴泰敎)는 1천 3백 82평의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8백 17평의 현대식 건물로 대운동장을 비롯 대회의실, 홍보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서식에는 廉普鉉 서울시장을 비롯 민정당 鄭男의원과 한국화재보험협회 李大鎔 이사장 등 귀빈 다수가 참석했다.

● 손보협, 손보시장개방 반대건의

국내 13개 손해보험회사의 사장들로 구성된 대한손해보험협회(회장 趙洪) 이사회는 11월 12일 손보협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미국의 보험시장 개방압력에 대해 손해보험의 추가개방을 반대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손보업계는 대정부건의안에서 현재 손해보험 개방률이 97%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규모의 영세성등을 들어 현시점에서 시장의 추가개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화재보험풀의 경우 법률에 의한 의무보험인데다 재해보상과 화재안전점검, 국가기관에 대한 소방기기 무료제공,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응자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 혈행 국내 화보풀 운영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 국내 손보사 적자경영

미국으로부터 시장개방압력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85년 상반기(85. 4월~9월) 영업실적이 84년 동기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들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보면 자동차보험부분이 1백 2억 3천 5백만원의 적자를 기록, 84년의 73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29억원이나 확대되었는데 7개보험회사가 적자는 3억원에서 크게는 31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단 주요기관장 국군장병위문

한국보험공사 宋炳循 사장은 지난 12월 17일 유관기관 기관장인 李人鎣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趙洪 손보협회장, 張承台 생보협회장과 함께 동부전선 ○ ○부대를 방문하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에게 TV등 선물을 전달했다.

● 동방사 상호변경

현대그룹은 계열회사인 동방화재해상보험(주)의

상호를 10월 17일자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 변경했다.

● 동양사 창립63주년 기념식 거행

동양화재는 지난 10월 14일 본사 12층 강당에서 본사 임직원 및 전국지점장, 수도권 점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63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가졌다.

● 신동아사 사옥이전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는 11월 24일 시청앞 사옥에서 중구 남대문로 5가 166번지 구 대한생명건물로 사옥을 이전하였다.

● 손해보험관리자 세미나개최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설악파크호텔에서 손해보험관리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재무부관계관과 학계, 회원회사 기획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 세미나에서는 손해보험산업의 당면과제와 장기발전계획등이 연구토론되었다.

● 롤·플레잉 경연대회 개최

보험업계 정화추진위원회는 11월 21일 동방생명 국제회의실에서 손·생보 18개사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롤·플레잉」 경연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는 대고객 서비스강화와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단막극 형식의 연극으로 구성, 진행되었다.

● 장기손해보험 세미나 개최

대한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1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수안보호텔에서 장기손해보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장기손해보험의 판매활성화대책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 세미나에는 보험공사를 비롯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업무 및 점포관리부장이 참석했다.

나의정직 너의믿음

사라지는 불신풍조